

“31년 ‘27만1560시간’ 초침처럼 쉽 없이 왔죠”

총장으로 오래될 가게의 재발견

(4) 총장로 5가 시계 전문점 T&T 오방용 대표

시계 영업으로 업계 입문...성실·근면으로 한 우물
IMF 때 위기 패션시계로 대박...장남 정훈 씨 가업 이어

※이 기사의 동영상은 광주일보 홈페이지(kwangju.co.kr)·유튜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시간을 매우 귀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루를 25시간 삼아 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분초를 다투며 일상을 영위하기도 하지요.”

총장로 5가에 자리한 시계 전문점 T&T 오방용(60) 대표. 화순 출신인 그는 첫 만남에 시계의 중요성을 말했다. 80년대 후반부터 시계 관련 일을 해왔던 터라, 누구보다 시계의 소중함을 인식했다. 기자는 오 대표와의 인터뷰 약속을 하면서 T&T라는 상호가 매우 이색적이라는 생각을 했다. 폭발성 화학 물질인 “TNT”가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었다. “다들 상호를 들으면 그렇게 생각한다”는 오 대표의 말에는 그만큼 이름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T&T는 Time & Tide의 약자입니다. 시간 그리고 조류이라는 뜻이죠. 한마디로 시간의 역사, 시간의 흐름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지요.”

한번 들으면 잊지 않는 상호에는 그런 깊은 의미가 깃들어 있다. 오 대표가 얼마나 시간에 대한 철학이 분명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매장에는 어림잡아 수백 개의 시계가 진열돼 있다. 각양각색의 시계는 저마다 오 대표가 강조한 것처럼 시간의 의미와 가치를 웅변하고 있는 듯하다. 날찍해 보이는 매장은 첫눈에도 산뜻하고 쾌적한 분위기가 흘렀다. 지금의 자리로 이사를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디스플레이가 주는 효과인 듯했다.

그가 시계업에 뛰어들은 것은 지난 1989년이었던. 취업을 준비하던 시절 신문에 나온 모집공고를 본 것이 오늘의 그의 삶을 결정했다.

“당시 오리엔트, 삼성, 아남 등 세 곳이 3대 메이커였어요. 면접을 통해 아남 광주 영업소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제 나름의 기준을 세우고 열심히 현장을 뛰었어요.”

그는 손목시계 영업으로는 “전국 최초로 자가운전을 하며 영업을 했다”고 덧붙였다. 남보다 먼저 출근하는 것은 기본이고 “소매점포가 문닫기 직전까지” 열심히 일했다.

그러나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법. IMF를 계기로 그의 삶도 급전직하했다. 당시 빛이 10억 가까이 달했다고 한다. 오 대표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다”며 “그럼에도 숨거나 피하지 않고 빛을 갈아 나갔고 2002년도에 빛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IMF 이후 시계 분야 유통 구조도 점차 바뀌게 된다. 당시 선물코너가 유행하면서 패션 시계도 덩달아 인기를 끌던 시절이었다. 오 대표가 심혈을 기울였던 패션시계가 대박을 치면서 다시 전성기를 맞았다. 이후 오 대표는 우산 도매 회사인 ‘정우사’를 인수해 사업영역을 확장했다. 전국 물류도 함께 병행하기 위한 일환이다. 그는 “거리를 길다가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우리 제품을 볼 때면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다”며 웃었다.

현재 그의 장남 정훈(33) 씨가 가업을 잇기 위해 일을 배우고 있다. 모든 아버지가 그렇듯이 그 또한 아들이 자신보다 더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시간만큼 정직한 게 없는 만큼 오늘을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면 반드시 아들도 자신만의 꽃을 피울 거라 기대한다.

“시간은 생활 그 자체입니다. 누구나 스케줄에 의해 움직이고 저마다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소중한 가장 가치 있는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은 생활 그 자체입니다. 누구나 스케줄에 의해 움직이고 저마다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소중한 가장 가치 있는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 임곡농협 정태진·한명숙 부부 ‘이달의 새농민상’

광주 임곡농협 조합원 정태진·한명숙(사진) 부부가 ‘이달의 새농민상’을 받았다.

농협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강형구)는 최근 농협중앙회 본관 대강당에서 열린 ‘이달의 새농민상’ 시상식에서 정씨 부부가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오늘 판 야채” 농장을 운영하는 이들은 20여년 동안 시설풍열작용물(썬채소)과 벼 농사를 하고 있다. 벼 농사에 대해서는 유기농 인증을 획득했다.

새로운 재배농법 및 우수농업기술을 주위와 공유하고,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이달의 새농민상은 농협이 1965년부터 자립·과학·협동의 새농민운동 3대 정신에 앞장선 선도농업인 부부에 수여하는 상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동신대, 재학생 취업전략 수립 ‘기업분석 경진대회’ 성료



동신대학교는 지난 25일 재학생들이 희망하는 직무와 기업에 따라 취업전략을 수립하는 ‘기업분석 경진대회 발표회’를 마무리했다. 지난 9월 말부터 두 달 동안 진행된 프로그램에는 8개 학과, 12명의 재학생이 참여했으며 모두 네 차례의 기업·직무 분석 컨설팅을 받았다.

<동신대 제공>

위터웨이플러스 영산강문화관-빛고을공예창작촌 협약



주위터웨이플러스 영산강문화관과 빛고을공예창작촌은 지난 25일 영산강문화관에서 지역 네트워크 홍보존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영산강문화관 ‘지역 네트워크 홍보존’에 빛고을공예창작촌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함으로써 공예작품에 대한 홍보와 다양한 공예체험을 할 수 있도록 체결했다.

<주위터웨이플러스 영산강문화관 제공>

인애종합사회복지관, 남구 독거어르신에 사랑의 김치·쌀



인애종합사회복지관이 최근 따뜻한 겨울나기 행사를 열고 김장김치와 쌀 10kg, 미끄럼방지 방한양말을 독거어르신 35세대에 전달했다. 또 남구 여성단체협의회 이사회원 회장, 남구청장 부인 윤지영씨 등과 함께 독거노인 기정을 방문했다.

<인애종합사회복지관 제공>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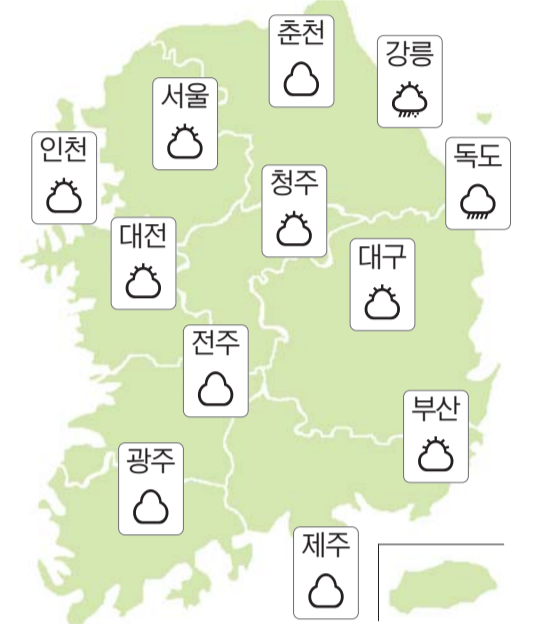
해돋이	07:19	달뜨기	15:46
해지기	17:21	달지기	04:06

성큼 다가온 ‘동장군’

북서쪽 찬공기가 남하하면서 낮기는 10도 내외로 쌀쌀하겠다.

광주	흐림	5/10	보성	흐림	3/11
목포	흐림	8/10	순천	흐림	7/12
여수	흐림	8/12	영광	흐림	4/9
나주	흐림	3/11	진도	흐림	8/12
완도	흐림	8/12	전주	흐림	4/9
구례	흐림	3/10	군산	흐림	4/9
강진	흐림	6/11	남원	흐림	2/9
해남	흐림	5/11	흑산도	흐림	10/12
장성	흐림	3/10			

◇ 전국 날씨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파고 (m)	파고 (m)	파고 (m)	파고 (m)
서해남부	앞바다	1.0~2.0	1.5~3.0	1.0~3.0	2.0~4.0
	면바다(북)	1.0~3.0	2.0~4.0	1.0~3.0	2.0~4.0
남해서부	앞바다	0.5~1.0	1.0~2.5	1.5~2.5	2.0~4.0
	면바다(서)	1.5~2.5	2.0~4.0	1.0~2.5	2.0~4.0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5:30	17:56	12:34	--:--
여수	01:05	13:24	07:24	19:32

◇ 생활지수

감기	뇌졸중	미세먼지
보통	보통	보통

◇ 주간 날씨

28(토)	29(일)	30(월)
☁	☀	☀
2/7	1/8	1/10
12/1(화)	2(수)	3(목)
☀	☀	☀
1/10	2/11	1/9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1 FAX 062-222-4938, 222-4918

화족

- ▲김용백(광주일보 기자)·박남임씨 장남 록주군, 정치모·신경순씨 차녀 은희양=28일(토) 오전 11시 광주시 서구 데일리레딩컨벤션 2층 오비도스 홀 062-371-3500.
- ▲정재현(전 광주일보 논설실장)·임영숙씨 장남 영철군, 이명석·민순씨씨 장녀 민아양=28일(토) 낮 12시 30분 서울시 강남구 스카라티움 강남점 2층 오델홀 02-538-3300.
- ▲봉병래·김선례씨 장남 원영(항해사)군, 김선철·최진희씨 장녀 유리(임상병리사)양=29일(일) 오후 1시 30분 광주시 서구 웨딩그룹위더스 3층 펠리체홀 062-364-1234.

알림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프로그램 신청=취업상담, 직업훈

- 련, 일자리알선, 취업교통비 지원 등 취업지원 및 긴급원호, 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 ▲청소년전화062-1388=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시간 전화상담.
-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노인학대 신고=연계된 노인학대로 힘들어 하고 계신 분들, 노인학대를 목격하시거나 알게 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1577-1389.
-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주간프로그램 운영=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대상 062-526-3370.
- ▲북구열린마음 상담센터 무료상담=정신건강&중독무료상담(음주·우울·불안·스트레스·치매·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 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무료 상담 062-413-1195.
-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음건강주치의운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문제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상담 062-654-3802.
-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관용 품무로지원, 장례지도사무로지원 062-369-4009.
- ▲지역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센터=월·금·오·후 5~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 ▲지역주민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 5개 아파트 단지 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

- 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방과 후 돌봄 이용안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호·교육·정서지원·문화체험·식식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062-522-9976.

모집

- ▲신창동 보은사 목련합창단 단원모집=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남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신창동 대광로제비마을 아파트 후문 80미터 010-4622-7838.
- ▲정보기술분야 직업훈련생 모집=15세 이상 장애인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산 사무행정. 교육기간 1년. 교육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전남직업능력개발원 061-320-7024.
- ▲시니어플래너지지도사(자격반) 모집=사·군·구 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010-5522-9700.

- ▲블로그 창업희망자 속성교육생 모집=스마트폰 활용가능자 수시모집, 5~6명이던 개강, 광주대성초등학교 건너편, 광주블로그창업동호회 062-511-0030.
- ▲인생이모작 카운슬러 모집=인생2막 생애 재설계, 은퇴 신중론 상담에 관심 있거나 교육경험이 있는 48~58세 남아 모집, 실버제조, 치매예방 놀이, 노후생활 관련 강사 등, 한국50+ 희망발전소 010-2626-5018.
- ▲한국범죄방지지도사 자격증 무료 취득=성별, 연령 제한 없음, 광주시 동구 금남로 5가 169번길 호남본부 062-515-7521.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기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전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
-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당)=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수시모집(무료강의), 서방시장 안쪽 관리사무소 옆 062-512-5788, 062-262-1542.